

# 석유화학, 여수 호조에 울산 올상

KIKOCS, 7월 산업단지 가동률 84.2% 기록 ... 울산은 -4.3%로 부진

국가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이 7월 소폭 상승했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2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9월8일 발표한 <2005년 7월 국가산업단지 산업 동향>에 따르면, 7월 공장가동률은 84.2%로 6월에 비해 0.6%p 상승했다.

가동률 상승은 원/달러 환율 하락, 하계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주력업종인 석유화학,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호조에 따른 것이다.

7월 생산은 23조7222억원으로 6월보다 1.5%, 전년동월대비 12.3% 증가했다.

대형 원유정제공장의 여름철 정기보수 완료로 석유화학업종의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, 적극적인 마케팅과 가전제품의 계절적 수요증가로 전기전자업종의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된데 따른 것이다.

6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조선업종은 선박 건조단계상 일시적으로 생산이 감소했다.

단지별 생산은 서울(-1.7%), 반월(-0.5%), 창원(-5.4%), 울산(-4.3%)은 감소하고 온산(30.4%), 여수(6.6%), 군산(14.8%) 구미(3.9%)는 증가했다.

수출은 100억9900만달러로 6월보다 2.1%, 전년동월대비 11.5% 증가했다.

아시아나항공 파업에 따른 수출지연, 원/달러 환율 하락 등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석유화학의 수출실적 증가와 세계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로 인한 전기전자의 수출 호조세에 기인한 것이다.

<화학저널 2005/09/12>